

#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 Show

2023. 06 Vol. 615

6월호



#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15**

발행일 2023년 6월 5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 경제 트렌드

- 34** 경제키워드
  - Digital-Transformation 시대, 물건이 아니라 생태계를 팔아라
  -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알아보는 CFD와 공매도
- 38**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 40**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 44** 멤버스 라운지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 BCCI Special

**04**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CEO 취향저격

- 06** 국내 여행지 추천
  - 초록 초록한 6월의 부산 여행지
- 10** 메시지 인 시네마
  - 목숨을 바치는 외로움과 뜨거움 '봉오동 전투'
- 12** CEO를 위한 와인추천
  - 부산 청사포에는 풋사과, 프랑스 모나코에는 자몽 향기가
- 14** 가객의 인문학
  - 진실의 낮은 목소리 <작은 연못>과 <아름다운 사람>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ZOOM in BCCI

- 16** STORY OF 캡틴장
- 18** Together with 2030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한 아프리카 3개국 방문
- 20** 기업포커스
  - 동성모터스
- 24** Look at Me
  - 스타트업 '쥬테라블록'



## 트렌드 TALK

- 28** 트렌드 TALK
  - 골프 트렌드
  - 함께하는 절약은 즐겁다 '절약방' 열풍





#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이 5월 23일(화) 10시에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들의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 등을 비롯한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 장인화 회장 지역기업 애로해소 위한 원스톱 시스템 부산시에 제안하고 박형준 시장 적극 수용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 부산상의-부산시 정책간담회에서 장인화 회장이 지역기업 애로해결과 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박형준 시장이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추진되었다.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는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으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자문(컨설팅) 지원 ▲기업 애로해소 협의체 구성·운영 ▲기업으로 현안·동향 설문조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한다.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공동으로 운영

개소식에서는 센터 설립 배경과 주요 추진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설명하고, 지역기업들이 앞으로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원활하게 해소할 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원스톱 기업지원센터에는 부산상의 기업으로 전문직원과 부산시 기업음부즈맨이 상주하여 기업들의 애로해소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부산상의가 구축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활용하여 기업으로 해결에 나선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요청은 부산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51-888-6491~3)또는 소통플랫폼 홈페이지(<http://www.onestopbusan.kr/>)로 하면 된다.

“ 장인화 회장은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는 자금, 기술 등 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 해소는 물론이고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부산에서 만큼은 기업 현장을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규제와 행정 허들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힘입어 빠르게 치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는 시와 지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부산상의가 힘을 모아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혁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어 부산이 기업 하기 좋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스톱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는 장인화 회장과 박형준 시장



부산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 초록 초록한 6월의 부산 여행지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바야흐로 신록의 계절이다. 새순이 돌아 연둣빛으로 빛나던 두번이 이제 진한 녹색으로 채워지고 있다. 일년 중 가장 예쁜 초록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초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어떤가? 한적한 숲으로 떠나도 좋고 탁 트인 바닷길을 걸으며 싱그러운 초록을 만끽해보라도 좋다. 초록이 아름다운 부산여행지 4곳을 엄선하였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활기찬 6월을 만들어보자.



1



2

## 영도 아치둘레길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태종대로 가다 보면 숲속에 건물들이 모여 있는 작은 섬을 발견할 수 있다. 영도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섬 '조도'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바다 위로 놓여 있어서 섬이란 느낌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엿한 섬이다. 특이하게도 섬 전체가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로 조성돼 어느 섬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바닷길을 건너 조도에 도착하면 대학 캠퍼스 건물 뒤로 나지막한 아치산을 볼 수 있다. 바다와 맞닿은 곳은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이 만든 기암괴석들로 가득한 해안절벽으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만 볼 수 있는 장관이지만 최근에 아치둘레길이 조성되면서 이제는 걸어서도 만날 수 있다. 노을이 예뻐서 아치노을 길로도 불리는 둘레길은 해양대학교 입구 마린어드벤처파크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산항과 오륙도, 신선대부두가 한눈에 보이는 탁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이내 해안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데크로드가 나타난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따라 바다 위를 오르내리다 보면 아찔하면서도 상쾌한 기분이 든다. 절벽을 따라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를 오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10분쯤 그렇게 걷고 나면 둘레길의 끝인 전망대가 나온다. 부산 앞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건 물론이고 멀리 대마도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볼 수 있다.



3

1 2 3 영도 아치둘레길

## 동래읍성 역사탐방로

부산의 옛 이름은 동래이다. 동래부는 정3품 당상관이 부사로 임명될 만큼 국방과 대일 외교의 최전선이었다. 그런 동래를 지키던 성곽이 동래읍성이다. 고려 말에 축조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송상헌 부사가 치열한 전투를 벌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 지금은 복원을 비롯해 북장대와 서장대, 동장대 등 성곽 일부가 복원됐고 '역사탐방로'란 이름의 산책로도 조성돼 부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동래읍성 역사탐방로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가지 탐방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1 2 3 동래읍성 역사탐방로

역사탐방로를 즐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북문에서 출발해 북장대로 가는 길이 가장 짧으면서도 동래읍성 역사탐방로의 진면목을 잘 느낄 수 있는 코스로 북천박물관에서 출발해 북문까지 가도 되지만 초록잎이 무성한 6월이라면 동래문화회관에서 북문으로 향하는 숲길을 추천한다. 동래읍성을 품고 있는 마안산 자락을 따라 짧지만 제법 울창한 산림을 만날 수 있다. 북문에서 성곽을 따라 북장대까지 오르는 동안 주변 풍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부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북천동고분군을 비롯해 북문 앞에 위치한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다가 조금씩 도시 풍경이 나타난다. 마침내 북장대에 도착하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동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밤에는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어서 야경 명소로도 인기가 많다.

### 회동수원지 둘레길

부산의 식수원으로 오랜 세월 금단의 땅이었던 곳이 있다. 부산 금정구와 기장군, 경남 양산시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회동수원지다. 1964년부터 최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었기에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난 2010년에야 비로소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수원지 주변을 따라 20km의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부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청정 생태 탐방로가 탄생했고 단숨에 부산 최고의 걷기 코스로 자리매김 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4 5 회동수원지 둘레길

비롯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 갈대가 바람에 춤을 추는 호숫길 등 오감이 즐거운 비경들이 산책로를 걷는 동안 쉴 새 없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코스는 상현 마을에서 출발해 오륜본동을 지나 회동댐으로 이어지는 5.9km 구간이다. 울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져 부산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독특한 분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 오륜본동을 지나는 길에 만나는 대나무 터널도 이색적이다.

### 기장 장안사 대나무숲

기장 불광산 자락에 위치한 장안사는 673년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임진왜란 때 건물이 전소되었다가 이후 새로 짓고 고치기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꽤나 가파른 산봉우리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리 넓지 않은 경내이지만 천천히 둘러보면 볼거리들이 제법 많다. 장안사 앞을 지나는 불광계곡은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 피서지 가운데 하나이며, 불광계곡은 빛이 아름답고 밝기가 가장 선명한 운문산반딧불이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절집 뒤로는 깊은 대나무숲이 자리하고 있는데, 사립문을 지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빼곡한 대나무 사이로 작은 길이 보인다. 싱그러운 초록을 따라 대숲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이내 주변이 어두워진다. 하늘 높이 솟은 대나무들이 빛을 가려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든다. 관광객들로 소란스럽던 사찰 주변과 달리 숲 속은 고요하기만 하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

6 7 8 기장 장안사 대나무숲





## 목숨을 바치는 외로움과 뜨거움

# 봉오동 전투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 영화의전당 시네도스튜디오

3.1운동 이후 독립군의 무장 항쟁이 활발해지자 일본은 1920년부터 독립군 토벌 작전을 강력하게 펼친다. 봉오동은 당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의 근거지였고, 독립군을 쫓던 일본군은 대규모 추격대대를 봉오동으로 보낸다. 봉오동 전투는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영화 <봉오동전투>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 드라마다.



### Movie Info

개봉 2019.08.07. 국가 대한민국  
 등급 15세 관람가 러닝타임 135분  
 장르 액션, 드라마  
 사진출처: ㈜쇼박스



###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항일투쟁을 그린 기존의 영화들이 그러하듯이 <봉오동전투>도 일제의 만행과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경험을 영화 전반부에 배치한다. 살아있는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고, 입산부와 어린아이까지 스스럼없이 살상하거나 사람의 목을 베어 바닥에 던져버리는 일본군을 묘사한 장면은 관객의 분노 감정을 고조시킨다.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한 누나를 그리워하는 동생, 오래전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한 동생을 잊지 못하는 형, 그리고 오래전 떠난 고향 땅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인물들을 통해 슬픔의 감정을 차곡차곡 쌓는다. 이윽고 절체절명의 전투가 벌어진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영화의 후반부는 그런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해소될 만큼 짜릿하다. 여기까지라면 <봉오동전투>는 수많은 역사 액션 드라마의 반복 중 하나로 잊힐 것이다.

### 사명감과 외로움

<봉오동전투>가 집중한 것은 단지 조선의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한 사건만은 아니다. 외로움의 정서가 있달까. 주인공 이장하(류준열)는 대한독립군의 분대장이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일본군 추격대대를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봉오동 깊은 골짜기까지 유인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의 훈련 대장 해철(유혜진)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에게 서둘러 봉오동 일대를 벗어나라고 말한다. 장하는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 딱 총포의 유효사거리를 벗어난 만큼 지척의 거리에서 일본군을 계속 도발한다.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일본군 선발대와의 작은 전투를 대비에 바위틈, 버려진 폐가 등 봉오동 곳곳에 무기를 숨겨두고 열심히 달리며 복잡하고 가파른 산세를 넘나든다. 그는 그렇게 조금씩 싸우면서 죽음의 계곡 깊숙이 일본군을 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마치 대규모 병력의 일본군에게 쫓기는 한 마리 토끼 신세다. 그런데 애초부터 장하의 이 임무는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는 것이었다. 일본군 유인 과정에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일본군을 죽음의 계곡까지 유인하여도 그의 뒤를 봐주는 독립군이 없다면 역시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독립군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어쩌면 장하는 처음부터 죽음의 계곡이 자신의 최후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을지 모른다. 이 때문에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임무를 발설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봉오동 일대의 지형을 꿰뚫고 있으며 달리기가 가장 빠르다며 홀로 작전에 나선다. 거의 말이 없는 과묵한 장하의 얼굴에는 독립군의 사명감과 임무의 막중함과 외로움이 있다.



### 함께하는 승리의 순간

물론 이 외로움을 이기는 것은 함께하는 행동이다. 독립군자금을 운반하는 임무로 봉오동 일대에 온 해철 일당은 장하의 이 외로운 싸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모두가 사투를 벌이며 장하와 함께 죽음의 계곡에 도착한다. 총알도 떨어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제 더 이상 달릴 곳도 없다. 모두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 계곡의 꼭대기 산 능선을 따라 독립군이 등장한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해 국민회군, 대한신민단, 군무도독부 등 여러 독립군이 힘을 합친 대규모 독립군 연합 부대가 봉오동의 산자락 높은 곳에서 장하와 해철, 그리고 일본군을 내려다본다. 봉오동전투는 독립군의 승리로 기록된다. <봉오동전투>는 그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외로움과 뜨거움을 그린 영화다. 🇰🇷



# 부산 청사포에는 꽃사과, 프랑스 모나코에는 자몽 향기가

글·사진\_ 고희범 와인비버 대표

6월 이맘 때면 시원한 화이트 와인이 제격이다. 신기하게도 여름 초입에 접어들면 레드 와인 보다는 청포도의 향기에 입맛이 동한다. 어느 밤바람 좋은 날! 샤블리 와인 두어 병 챙겨 놓고 청사포(靑沙浦)로 떠나보자. 영화 '파랑주의보'의 촬영지였던 청사포는 동해남부선 옛 철길이 놓여있어 운치가 좋다. 한적한 어촌마을 풍광이 꽤 이국적인 곳이다. 오래전부터 횃집과 조개구이 식당들이 성황을 이루는 곳으로 연인과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도 이름난 포구다. 게다가 이 작은 어촌마을에 있는 약 350년 된 망부송(望夫松)과 망부암(望夫岩) 관광은 덤이다. 전설에 의하면 고기잡이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낙의 애뜻함이 용궁까지 전해졌고 청사(靑蛇)가 용왕의 뜻을 받들어 아낙을 용궁까지 데려와 남편을 만나게 해 주었다고 한다. 푸른 뱀이 출현했다 하여 청사포(靑蛇浦)라 불렸으나 후에 푸른 모래 포구, 청사포(靑沙浦)로 수정되었다.

## 샤블리 와인 선택법

샤블리는 프랑스 부르그뉴 지방 최북단에 있다. 청포도인 샤르도네 품종으로 빚어지는 샤블리 와인은 서늘한 기후와 독특한 토양 덕분에 그 품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다. 4가지 등급으로 생산되는데 뽀띠 샤블리(Petit Chablis), 샤블리(Chablis), 샤블리 프르미에 크뤼(Chablis 1er Cru), 그리고 샤블리 그랑 크뤼(Chablis Grand Cru)로 생산된다. 쉽게 얘기하면 레이블에 Petit Chablis와 Chablis로 표기된 와인은 일반적인 품질을 뜻한다. 반면에 Chablis 1er Cru와 Chablis Grand Cru로 표기된 와인은 포도밭의 경사도, 토질, 일조량, 배수가 좋아 품질이 우수하다. 이 중 샤블리 그랑 크뤼는 오렌지껍질, 아카시아, 그리고 버터 풍미가 더해져 가장 훌륭한 풍미를 선사한다. 지아비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도 있고 차태현과 송혜교의 꽃사과 같은 로맨스도 있는 곳! 이 조그만 포구에서 샤블리 와인 한잔 어떨까?



샤르도네 품종



조개구이와 샤블리는  
천생연분

## 쫄깃한 식감의 조개구이와 샤블리 와인

그런 청사포에 묘하게도 샤블리 와인은 딱 맞아 떨어진다. 청사과의 짜릿한 신맛을 가진 샤블리 와인은 따뜻한 캘리포니아나 호주의 화이트 와인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농익은 과일 향에 단맛이 배어있어 조개구이와는 궁합이 덜하다. 쫄깃한 식감이 있는 조개구이는 단맛이 적고 신선한 꽃사과 맛이 나는 샤블리 와인이 제격이다. 와인 이름이자 지명 이름인 샤블리는 오래전 바다였던 탓에 굴과 조개껍질들이 포도밭 토양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패류(貝類)음식과는 원초적으로 조합이 맞아 떨어진다. 게다가 갓 출시된 샤블리 와인은 연한 노란색에 푸른빛이 감돌며 바다의 미네랄 향도 녹아있어 천생배필이다.



샤도 스미스 오 라피트 포도원



라미시옹 오 브리옹 포도원



샤도 라 미송 오 브리옹 포도원 내부



라미시옹 오 브리옹 블랑과  
거기에 어울리는 각종 해산물 요리

## 프랑스 여배우 바네사 파라디의 매혹적인 향기 라미시옹 오 브리옹 블랑

샤블리의 싱그러운 향기를 담은 청사포를 뒤로하고 이번엔 모나코로 가보자! 아찔한 낭떠러지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프랑스 남부의 조그만 해안 도시를 배경으로 2012년 5월에 개봉된 프랑스 영화가 있다. 코믹 로맨스 영화 하트브레이커에서 와인 전문가로 나온 여주인공 바네사 파라디는 모나코의 한 레스토랑에서 화이트 와인을 주문한다. 영화 속 프랑스 재벌가의 외동딸답게 보르도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고른 것이다. 그 와인은 라미시옹 오 브리옹 블랑(la Mission Haut - Brion Blanc)와인으로 짙은 자몽 향기와 쾌적한 산미가 돋보이는 화이트 와인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마치 도도하며 세련된 바네사 파라디의 매혹적인 향기와 흡사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프랑스 배우 로맹 뒤리스의 통통 튀는 매력과도 닮았다. 고희적인 향기를 내는 라미시옹 오 브리옹 블랑 와인은 샤블리와는 사뭇 다르다. 소비뇽 블랑 품종으로 빚어 탄탄한 유기산은 기본이다. 거기에 바닐라, 버터 풍미와 이국적인 과일 맛이 더해져 달고기, 농어, 광어 스테이크와 곁들이면 최고의 식탁이 아닐까 한다.

## 화이트 와인의 수작 스미스 오 라피트 블랑

이에 못지않은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포도원을 하나 더 꼽자면 스미스 오 라피트 블랑(Smith Haut Lafite Blanc)이다. 자몽, 복숭아, 살구, 꽃 향미와 유연한 질감은 와인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지 오래다. 이미 1365년부터 와인을 생산해왔으니 658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당대 최고의 포도원 중 하나이며 포도원 내 호텔을 만드는 과정에서 터진 온천수 덕분에 세계 5대 스파에 이름을 올리면서 포도원 만큼이나 유명세를 자랑한다. 흰살생선 요리와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다. 두 화이트 와인 모두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 포도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샤블리 와인과는 전혀 다른 맛과 향기를 지녔다. 샤블리의 청사과 풍미 그리고 자몽 향이 좋은 보르도 와인! 울여름 입맛을 돋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스미스 오 라피트 블랑과  
어울리는 농어 스테이크



## 진실의 낮은 목소리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 〈작은 연못〉과 〈아름다운 사람〉

집단 외상을 남긴 사건이 해석되기 위해선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한다. 6.25 전쟁에 대한 가객의 노래도 그러하다. 평자들은 말한다. 6.25가 노래가 되기 위해선 1970년대의 포크록을 기다려야 했다고, 그리고 그 대표 가객으로 ‘김민기’를 꼽는다. 6.25 직후 대중가요의 내용이 개인의 고통으로 축소돼 있었다면, 김민기의 노래는 개인의 고통에 깔린 세계의 부조리를 일깨워줬다.

김민기는 스스로를 진보주의자, 혹은 좌파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규정되는 것을 거부했다. <아침 이슬>(1971) 또한 운동권 가요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아침 이슬>이 운동권 가요가 아니라 ‘운동권 식’으로 반대 표명하는 모순도 범하지 않았다.

1987년, 군중 집회에서 <아침 이슬>이 울려 퍼지자 그는 더 이상 <아침 이슬>이 자기 노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때 김민기 또한 그 군중 속에 있었다. 자기 노래가 아니므로 이후 그는 공식석상에서 <아침 이슬>을 부르지 않았다.

<작은 연못>(1971)도 김민기의 다른 노래처럼 모호하고 함축적이다. 그리고 이 모호하고 함축적인 의미 중에 ‘전쟁’도 포함돼 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무섭고 아름다운 노래다. 전쟁의 진실을 직면케 하는 노래다. 이 노래는 전쟁의 참혹함과 무자비함을 고스란히 노출시킨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미래까지도 파멸시킨다.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며,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된다.

이 노래로 배우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진실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 김민기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작은 연못>은 고요해서 더 무섭고 더 아름답다. 발표 당시 금지곡이었던 이 <작은 연못>은 지금 초·중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다. 시대의 지성과 통찰의 힘일 것이다.

<작은 연못> 이전에도 김민기는 전쟁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다. <그날>(1971)이다. <그날>의 2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싸움터에 죄인이 한 사람도 없네” 전쟁 중이지만 아무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죄인인 것처럼 싸운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킨 진짜 죄인은 죄인이 아닌 척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회생당하는 전쟁의 부조리가 이 한 문장에 들어 있다.

전쟁과 분단, 평화에 대한 성찰이 이토록 아름답고 무섭게 담긴 노래가 있을까. 이 무서움과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1971)의 1절이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의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

가사가 역설적이다. ‘그 사람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라고 돼 있다. 마치 그렇게 아름다워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아니면, ‘사람’은 다 아름답다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노래엔 ‘인물’이 아닌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존재가 있다.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이다. 그는 울고 있는 사람을 지켜본다. 울고 있는 사람의 아픔이 아픈 사람이다. ‘나’의 아픔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다.

김민기의 노래는 희망을 주지 않는다. 냉소와 허무에도 빠지지 않는다. 희망 없는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듯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희망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므로, 사람의 관계가 있으므로 희망이 없을 수 없다는 역설을 품고 있다.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 김민기는 실은 은둔자에 가깝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의 이런 행보가 진정한 정치일 것이다. 정치는 정파나 이해관계 속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윤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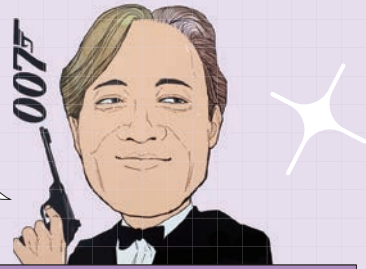
6.25 전쟁 73주년이다. 여전히 휴전 상태이고 북한의 핵 위협과 신냉전 위기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다. 일상의 평화로움이 차라리 낯설 정도다. 이런 시기에 김민기의 <작은 연못>과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에게 진실과 치유를 함께 준다. 그의 노래는 2016년 밥 딜런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긴 반전과 평화의 노래 <Blowin' in the Wind>(1962)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의 어둡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아침 이슬>을 듣고 싶은 이유다. 🇰🇷



#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한국-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2023. 4. 19.)



에티오피아에 우리 부산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지요?

매경 원아시아포럼(2023. 4. 27.)



아침부터 다들 좋은 강연 들으러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네데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식(2023. 4. 28.)



이번 유치 후원 기부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연말 개최지 결정까지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아시아정당 국제회의(ICAPP) 기업협의회 환영 오찬  
(2023. 5. 2.)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4회 동명대상 시상식(2023. 5. 10.)



전임 부산상의 회장님이셨던 두 분의 동명대상  
수상을 지역경제계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파나시아 제3공장 기공식(2023. 5. 16.)



제3공장과 함께 파나시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산차인회 창립 50주년 기념 차인의 밤  
(2023. 5. 16.)



우리 전통차와 다도 문화를 발전시켜온  
차인회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2023. 5. 23.)



이제 우리 기업들 모든 애로사항 여기로 다 들고오면  
되겠지요~~~?







한국-보츠와나 비즈니스 포럼 기념촬영



한국-나미비아 기업 네트워킹 교류회 기념촬영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한 아프리카 3개국 방문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정부 관계자 등 방문단이 아프리카 튀니지, 나미비아, 보츠와나 3개국을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펼쳤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및 아프리카 3개국과 협력 교두보 마련

이번 방문단은 튀니지, 나미비아, 보츠와나 3개국을 방문하여 각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하며 유치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 및 부산과 아프리카 3개국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를 하였다. 방문단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영환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이태원 본부장,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부산시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였으며, 부산 지역 기업 금양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도 현지에서 함께하며 경제분야 협력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방문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외에도 튀니지, 나미비아, 보츠와나 3개국과 친환경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나가는 것을 협의

하였다. 구체적으로 튀니지는 보건의료, 나미비아는 신재생 에너지, 보츠와나는 수자원 분야에서 각각 협력을 희망하였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현지 법인장들과 간담회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프리카에서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분위기가 처음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번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의한 것을 뒷받침하는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 고기 잡는 법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상의 이영환 상근부회장은 “이번 방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계가 아프리카 3개국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역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PT 알아보기

6월중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2030세계박람회 유치 4차 경쟁 PT는 실사 보고서, 개발도상국 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부분들이 각 회원국에 공유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경쟁 PT는 남은 공식 일정상 개별 회원국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BIE 주관 공식 리셉션이 함께 개최될 예정인 만큼 총력을 다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식일정

- BIE 총회 및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6월 20일 프랑스 파리) (예정)
- BIE 주관 공식 리셉션(6월 21일 프랑스 파리) (예정)

#### 4차 PT 주안점

-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고유의 노하우를 살린 국가별 개발협력사업인 ‘부산이니셔티브’ 강조
- 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이니셔티브를 실현해 줄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이니셔티브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혜택 제시

#### 향후 주요일정

- 9월 ~ 10월: 유치 후보도시별 심포지엄
- 11월말: 제173차 BIE 총회, 최종 5차 경쟁 PT 개최지 투표 및 결정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부산·영남권 수입차 업계 절대 강자 동성모터스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부산의 향토기업 동성모터스는 BMW를 포함한 MINI, BMW Motorrad, Rolls-Royce 등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와 더불어 BMW 인증 중고차 사업부인 BPS (BMW Premium Selection), 독일 명품 카메라 Leica Store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창원, 울산, 진주, 포항에 18개 전시장과 12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최대의 수입차 딜러사이다. 또한, 지방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인 '고은사진미술관'과 세계적인 사진작가 랄프 김슨을 기념하는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을 공식 후원 및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메세나협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BMW 해운대 전시장 전경

## History of Dongsung Motors

1997년 BMW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 동성모터스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성장시켜 왔다. 2008년 MINI 비즈니스 시작, 2011년 BMW 인증 중고차사업 (BPS)을 공식 런칭 하였으며, 이후 Rolls-Royce, Leica, BMW Motorrad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또한 매년 BMW 공식 딜러사를 대상으로 하는 'BMW 그룹 코리아 딜러 어워드'에서 전 딜러사 최초로 네 번의 최우수 딜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규모만큼이나 탄탄한 내실을 갖추며 끊임 없이 성장하고 있다.

## 더 큰 감동을 선사하다

동성모터스는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더 큰 감동을 전한다'는 고객 지향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확장과 고객 서비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초로 서킷 콘셉트가 도입된 M (BMW의 고성능 브랜드) 모델 전용 전시 공간인 'M 퍼포먼스 센터'를 오픈하였으며, 최근에는 M 고객 전용 서비스 공간인 'M 퍼포먼스 개러지 해운대'를



BMW M 퍼포먼스 개러지(해운대)

오픈하며 BMW M 보유 고객이 독립된 라운지에서 차량 관리, 다양한 파츠에 대한 상담 및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성모터스는 2022년 6월 'BMW·MINI 금정 통합 센터'와 'BMW 사상 통합 센터'를 오픈하였으며, 최근에는 'BMW 해운대 전시장'을 리노베이션 하며 보다 쾌적하고 프리미엄한 공간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성모터스는 BMW와 MINI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보관 및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BMW 에어포트 서비스 부산'을 런칭하며 김해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 울산의 롯데마트와 연계한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동성모터스는 언제나 고객 접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BMW M 퍼포먼스 센터(해운대)  
2 BMW 딜러 어워드







ESG 경영리더십을 갖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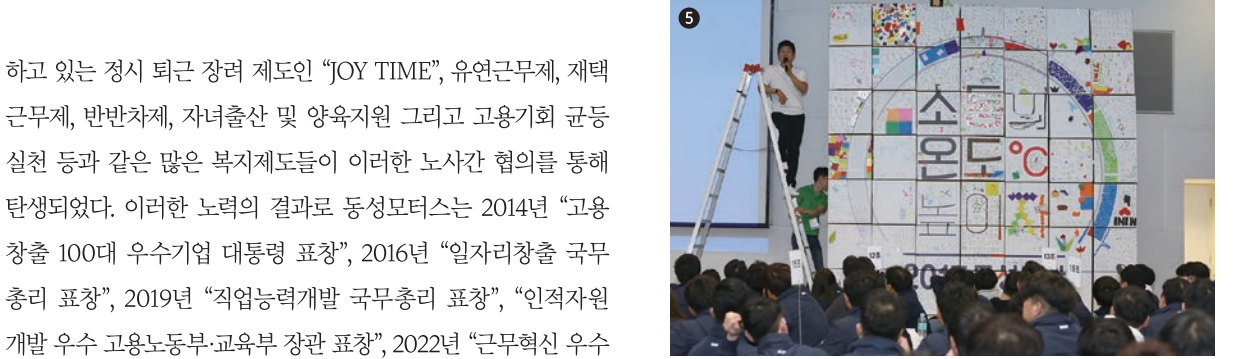
동성모터스는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전기 절감용 설비를 설치하고 종이컵 없애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을 통해 플로깅 이벤트와 친환경 클래스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친환경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부산시와 협업하여 동성모터스의 부산지역 모든 전시장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동성모터스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의 여러 대학과 산학 협약을 체결하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전문 학교와도 연계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 동성모터스 전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2 2022년 10월에 체결한 동성모터스-창원문성대학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  
 3 BMW 창원전시장에서 진행한 '지구를 위한 한 걸음' 클래스

Drive Success & Share the Joy

동성모터스는 “Drive Success & Share the Joy”라는 비전과 5가지 핵심 가치(소통, 신뢰, 열정, 도전, 행복)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즐거운 동성동락(同成同樂)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되는 JOY FORUM(노사 협의회)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동성모터스에서 운용



하고 있는 정시 퇴근 장려 제도인 “JOY TIME”, 유연근무제, 재택 근무제, 반반차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그리고 고용기회 균등 실천 등과 같은 많은 복지제도들이 이러한 노사간 협의를 통해 탄생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성모터스는 2014년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2016년 “일자리창출 국무총리 표창”, 2019년 “직업능력개발 국무총리 표창”, “인적자원 개발 우수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 표창”, 2022년 “근무혁신 우수 기업 선정”, 2023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3회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다.

4 5 동성모터스 전직원 워크샵

비상하는 동성모터스

최근 BMW M전용 하이브리드 SUV 모델인 ‘BMW XM’이 출시되며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78년 출시된 BMW M1 모델을 계승하며 45년 만에 선보이는 BMW XM 모델은 BMW의 플래그십 모델인 ‘THE NEW 7’과 함께 BMW 특유의 럭셔리하면서도 역동적인 퍼포먼스 DNA의 정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성모터스 임직원들은 그 어떤 엔진보다도 열정적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동성모터스가 기대되는 이유다. 🚗



6 동성모터스 상담 부스(ART BUSAN 2023)  
 7 VIP 의전 차량 협찬(ART BUSA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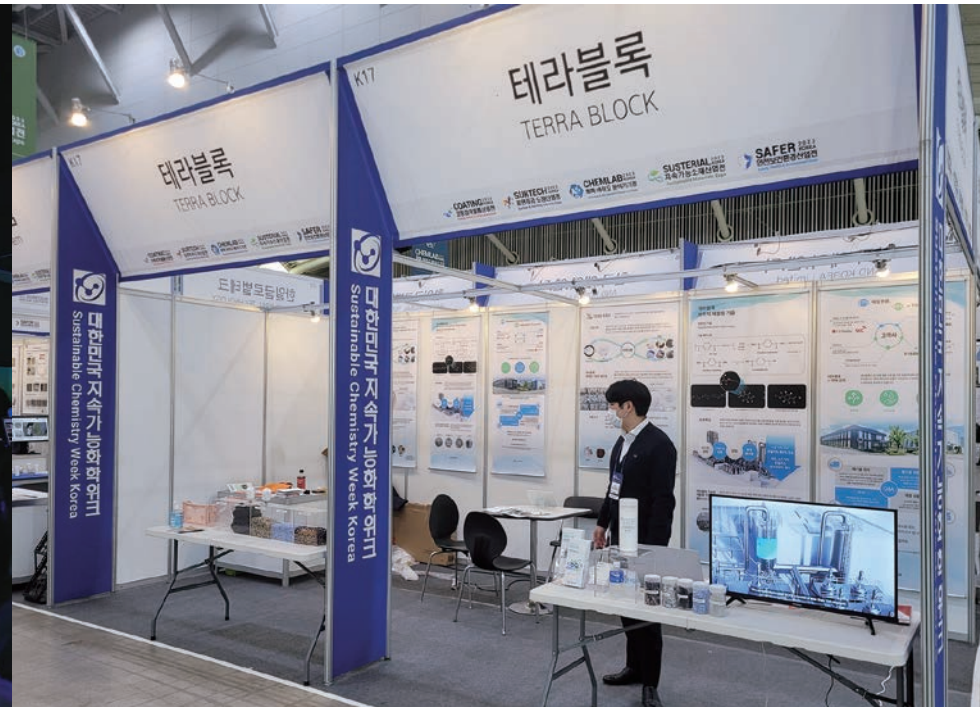


동성모터스가 수상한 정부 표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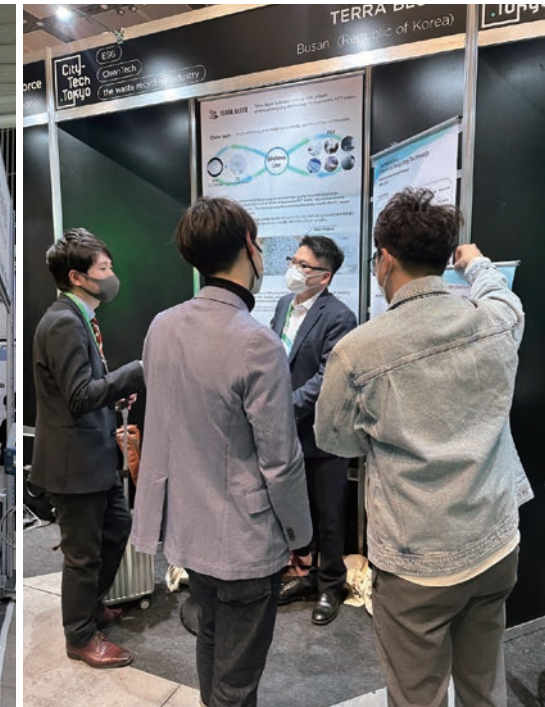




2022 환경부 HERO IR DAY 발표하고 있는 권기백 대표



2023 지속가능화학위크 테라블록 참여 전시회



2023 Tokyo City Tech 전시회에 초청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TERRA BLOCK**

## 플라스틱의 무한한 재생을 실현하는 에코스타트업 (주)테라블록

모두가 탈 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이 탄생한 이후 생산량과 폐기량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테라블록은 이러한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이다.

### 테라블록의 기술 및 사업 방향성

테라블록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춘 우수한 대체제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많다. 첫 번째 이유는 대체제의 문제다 요즘 생분해 소재나 천연자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러한 식량자원 기반의 생분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환경적인 효과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2022년 환경부에서 생분해 소재 비닐봉지의 친환경 인증을 중단했다. 두 번째 생분해 소재는 기존 플라스틱 대비 물성이 약하고 가격이 비싸며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생분해 소재는 매립지에서 60°C 이상의 온도가 갖춰줘야 비로소 분해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더라도 생분해 소재는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기존 플라스틱과 하나하나 구별하여 종량제 봉투에 폐기해야 하며 전용 매립장이 필요하지만 매립장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테라블록은 기존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기존 사용 기업에서도 막대한 설비 교체 없이 빠른 순환경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 재활용 기술의 문제

물리적 재활용 기술은 공통적으로 선별 → 분쇄 → 세척 → 건조 → 용융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낮으며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로 측정되지만, 많은 폐수와 고온 용융으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 이상 물리적 재활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계가 명확한데 PET를 예로 든다면 보통 시트, 섬유, 용기로 재활용되는데 PET 병을 제외하고는 유색, 복합 소재가 되면서 추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결국 매립 소각 된다. 즉 원료의 사용 기한을 약간 늘리는데 그치는 선형적 재활용에 그치게 된다. 이것은 AI가 발달하고 분리수거를 더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할 기술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이렇게 물리적 재생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은 대부분 저부가가치의 소비재 제품들 위주로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소재,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식품에도 안전하게 사용 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문제점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물성이나 색상이 떨어지고 몇 번 재활용한 소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품질 측면에서 규격화가 어려워 대량 양산라인에 사용되기 적합하지 않다.



k-CAMP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권기백 대표



부산상공회의소 이노베이션 및 업 페스티벌에서 발표하는 권기백 대표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차세대 기술, 해중합**

앞선 물리적 재활용의 단점을 모두 해결한 기술이 해중합 기술이다. 해중합 기술은 축합 또는 부가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PET,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은 열분해에 의하여 모노머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유일하게 해중합을 통해서만 분해가 가능하다. 해중합 기술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반응 경로가 있는데 그중 가수분해 기술을 사용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TPA(테레프탈산)가 가장 범용적인 재생 단량체로 테라블록의 주요 제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정부와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소개된 바 있었고 국내 주요화학사들도 2021년 이후 모두 해당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 협력,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중합 기술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재활용을 할수록 경제성과 환경성이 떨어져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테라블록의 기술은 이러한 해중합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여 대량 양산 기반의 촉매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이전으로 시작되었다. 단계별 추가 기술이전과 개량을 통해 현재 자동차 기반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고 2023년 세계 최초 재생 TPA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기술적 특징은 100℃ 이하의 온도를 사용하고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용매와 촉매는 반복 재사용하여 명확한 경제성과 환경성을 보유하고 있다. 테라블록은 보유기술로 최근 환경부 화학적 분해에 의한 monomer 생산 기술 항목에서 재활용률 97%를 달성하며 국내 최초, 유일로 해당 부분에서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였다.



1 연구원 사진  
2 재생 TPA 제품

**주요제품 재생 TPA(테레프탈산)의 경쟁력**

테라블록의 주요 제품인 재생 TPA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도와 범용성을 자랑하고 양산화 실현이 코앞에 다가왔다. 현재 제품의 순도는 99% 이상으로 신재와 유사하고 색상도 완전한 백색이다. 테라블록은 대표적으로 필름, 용기, 페인트, 섬유 분야의 대기업에서 PoC를 성공으로 검증 완료했으며 올해 미국, 일본, 유럽 진출을 위해 여러 해외 인증을 진행 중이다. 테라블록의 재생 TPA는 공장 가동 전 이미 2년간 생산할 물량에 대한 예약을 완료했으며 고객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2023년 10배 스케일업을 준비하고 있다. 테라블록은 앞으로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이나 안전이 연관된 품목들에서도 재생소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재생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산 스타트업, 세계 최고의 환경기업 목표로**

테라블록 권기백 대표는 예비창업자 시절 부산시, 부산 MBC, 부산은행이 주관하는 B-start up 챌린지 은상을 수상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2021년 7월 법인으로 시작된 테라블록은 아직 업력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C-lab outside, 초격차+1000, SKC Plus, L-camp, 신한스퀘어브릿지 등 국내 유명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성장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부산 월드클래스 청년인재 선정 등 18건의 수상 이력과 3건의 투자유치, 5건의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12명의 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산 본점과 인천 연구소, 여수공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3년 부산 관내 신규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팀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한다. 권기백 대표는 “테라블록은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만든다는 미션을 가지고 인류에게 환경오염 없는 플라스틱의 무한한 사용을 허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3 테라블록 파allet 공장  
4 테라블록 여수공장

**테라블록의 각종 수상 내역들**

<p>2021 부울경 스타트업데이 혁신창업리그 우수상</p>	<p>2021 환경창업대전 입선</p>	<p>2022 신한스퀘어 브릿지 HERO IR DAY 우수상</p>	<p>도전 K-스타트업 2021 혁신창업리그 우수상</p>
<p>산업통상자원부 청년 기술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p>	<p>울산창업경진대회 센터 기술공모전 우수상</p>	<p>제3회 창업투자경진대회 B-Startup Challenge 은상</p>	<p>테라블록 녹색기술 인증서</p>





# 3대가 함께 즐기는 휴양 골프의 메카 나트랑

글사진 Ytour&golf  
www.ygolf.co.kr



1 2 빈펄 CC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 다낭은 경기도 00시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있으니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베트남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베트남에서도 나트랑은 한국인에게 최애 목적지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 최선호 리조트인 최대 규모의 빈펄리조트가 있고 식사, 음료, 주류까지 무제한 제공되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를 나트랑 전역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인 라운드와 함께 휴양이 가능하다. 나는 골프를 즐기고 가족은 관광을 즐기고 아이들은 워터파크를 즐기는 3대가 함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골프 여행 시스템이 완벽되어 있어 올 여름 휴가지로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호피제

### 빈펄 CC

모든 홀에서 바다의 전망을 볼 수 있으며, 800m 길이의 깨끗한 백사장을 따라 위치해 탁 트인 자연 풍경을 느낄 수 있다. 호수와 계곡을 지나며 해변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독특한 골프 경험을 제공하며 베트남 골프코스 Top 3에 선정되었다.

### KN CC

스코틀랜드 링크스 코스로 코스 내 나무는 거의 없지만 하얀 백사장과 해변을 배경으로 자연적인 푸르름이 한결 돋보이는 곳이다. 해안가와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 바닷바람의 풍속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는 코스로 평가받으며, 아시아 퍼시픽 베스트 뉴코스에 선정되었다.

KN CC



3 4 나라 CC

### 나라 CC

한 쪽은 해변, 한 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처음 9홀은 모래언덕과 호수를 따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며, 후반 9홀은 산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풍경의 코스로 다양하고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구한다.

## 비서관

### 나트랑베이 빈펄 리조트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갖춘 베트남 대표 리조트로 여행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리조트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사파리가 있는 테마파크 빈윈더스, 그리고 골프장이 있어 특히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프라이빗 비치와 바로 이어져있는 넓은 야외 수영장은 마치 바다에서 수영하는 듯한 매력을 준다.

### 셀렉텀 노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배고플 시간, 목 마를 시간없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로 브런치부터 야식, 주류와 음료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호텔 뷔페, 와인·양주·맥주 무제한 제공, 인피니티 풀, 아쿠아파크 등 모든 것을 리조트 안에서 추가 결제없이 즐길 수 있고 부대시설로는 아쿠아파크, 스파, 키즈클럽, 헬스장, 테니스코트, 탁구장, 미니골프장, 버드가든 등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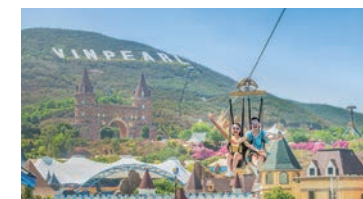
5 나트랑베이 빈펄 리조트

6 셀렉텀 노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 ★ 여행지 추천 ★

### 빈윈더스

빈펄 소유의 혼재 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나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사파리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공원 내 5개 구역 외에도 퍼레이드, 이벤트 등이 매일 열린다.



### 달랏

'영원한 봄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곳으로 해발 1,500m 고도에 위치하여 연평균 14~23도로,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느낄 수 있다. 나트랑에서 3시간 거리에 있으며,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숲과 호수, 폭포 등 청정자연을 만날 수 있다.



### 판랑

나트랑 시내에서 약 2시간 거리 근교에 위치한 곳으로, 이국적인 사막을 만나볼 수 있다. 지프차를 타고 모래 언덕을 달리는 사막 투어는 베트남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한국 골프, 참 어렵다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필자는 일년에 3~4개월은 해외에서 체류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 답사와 관계자 미팅, 현지 업체와 비즈니스 조율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소개되고 출시한 골프 상품이 고객들에게 선택받았을 때 보람도 느끼고 사업적인 성장도 도모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인들과의 골프 약속은 주로 주말을 이용한다. 외국 체류가 많은 관계로 주중엔 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가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주중 골프에는 반복되는 업무전화 등으로 골프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주말은 비용이 곱절까지 늘어나지만 골프와 동반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주말 골프가 가성비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다.

## 외국 골프보다 3~4배가 더드는 비용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골프를 두루 경험하는 필자에게 한국에서의 골프의 인상은 ‘참 어렵다’이다. 가장 먼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예산’이다. 코로나19 영향이 크겠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만 20여만원 가까이 나오고 주말은 25만원이 훌쩍 넘는다. 카트, 캐디피에 식사까지 하다보면 30~4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한 달에 2~3회만 골프를 즐겨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MZ세대의 골프유입으로 골프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코로나가 끝나니 무너지는 것도 이에 기인함이 크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70불에서 100불이면 18홀 라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카트, 캐디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일본은 노캐디가 대부분이고 5천엔부터 라운드가 시작되고 명문CC도 주말기준 15,000엔을 넘지 않는다. 골프여행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이면 해외도 다녀오는데 본전 생각이 안날 수가 없다.

## 골프 라운딩 부킹이 어렵다

두 번째 어려움은 ‘부킹’이다 주말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주중도 괜찮은 시간대는 거의 찾기가 힘들다. 대중제CC의 예약 오픈일에 일반인들은 골프장 부킹을 위해 오픈런을 하듯 예약을 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마저도 업자들이 매크로를 돌려 몇초 만에 예약이 다 마감되기도 한다. 결국 회원권을 가진 일부 골퍼들 이외 대부분의 골퍼들은 카카오킨트 등 골프부킹 플랫폼에 기대어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골프부킹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은 골프장에도, 골퍼에게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골프의 성지, 골퍼의 버킷리스트인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류CC 올드 코스는 추첨으로 라운딩 예약이 정해진다. 골퍼라면 버킷리스트 1번인 골프의 성지를 누구든 라운딩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회원 우선, 골프장 관계자 인맥을 통해 부킹이 이루어지는 한국골프장의 째깍이 부킹현실로는 골퍼대중화는 결국 요원하기 짝이 없다.


## 골퍼를 배려않는 공급자 우위의 라운드 조건

세 번째 애로사항은 ‘라운딩이 어렵다’이다. 주요 공급의 법칙에 기인하긴 하지만 유독 한국은 4명이 되어야 플레이가 가능하다. 요즘엔 대놓고 ‘4인 필수’라는 부킹도 제법 보인다. 심지어 단체라도 예약할라치면 클럽하우스 식사조건이 붙는다. 멤버가 부족하면 모르는 사람들과 라운딩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일면식도 없고 핸디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멤버와의 동반라운드는 혹 불편을 넘어 불쾌함을 불러올 수도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골퍼문화이다. 2명 라운드가 자연스러운 해외에서 골퍼경험을 자주 하는 나로서 참 난감한 조건이다. 4명 라운드에 캐디가 거의 필수다 보니 플레이도 어쩔 때는 밀렸다가 어쩔 때는 재촉을 받았다가 들쭉날쭉하다. 페어웨이에 카트 진입도 불가하니 플레이시간은 5시간 가량이 소요되어 18홀을 더 즐기고 싶어도 새벽 티가 아니면 36홀 라운딩은 언감생심이다.

## 비기너가 적응하기 힘든 골프 문화

네 번째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멤버가 어렵다’이다. 한국골프는 내기골프가 거의 필수처럼 되어있다. 내기를 피할라치면 ‘내기는 골프의 양념이다’, ‘내기도 안하는데 골프를 왜 치냐’는 등 핀잔을 듣기 일쑤다. 오랜만에 골프장의 자연을 즐기고 샷에 집중하며 운동하고 싶은 골퍼에게 다소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골퍼문화가 한국골프에 거의 필수처럼 되어있다. ‘머리 올린다’로 대표되는 비기너 골퍼들은 심지어 내돈내산임에도 캐디며 동반자에게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하는 일도 종종 보게 된다. 비즈니스와 연결된 경우엔 즐기러 간 골프가 자칫 접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 가끔은 동반자라는 이유로 불편할 때도 있다. 함께 즐기는 가운데 업무가 연결되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차라리 골프장이 아닌 저녁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게 어떨지 생각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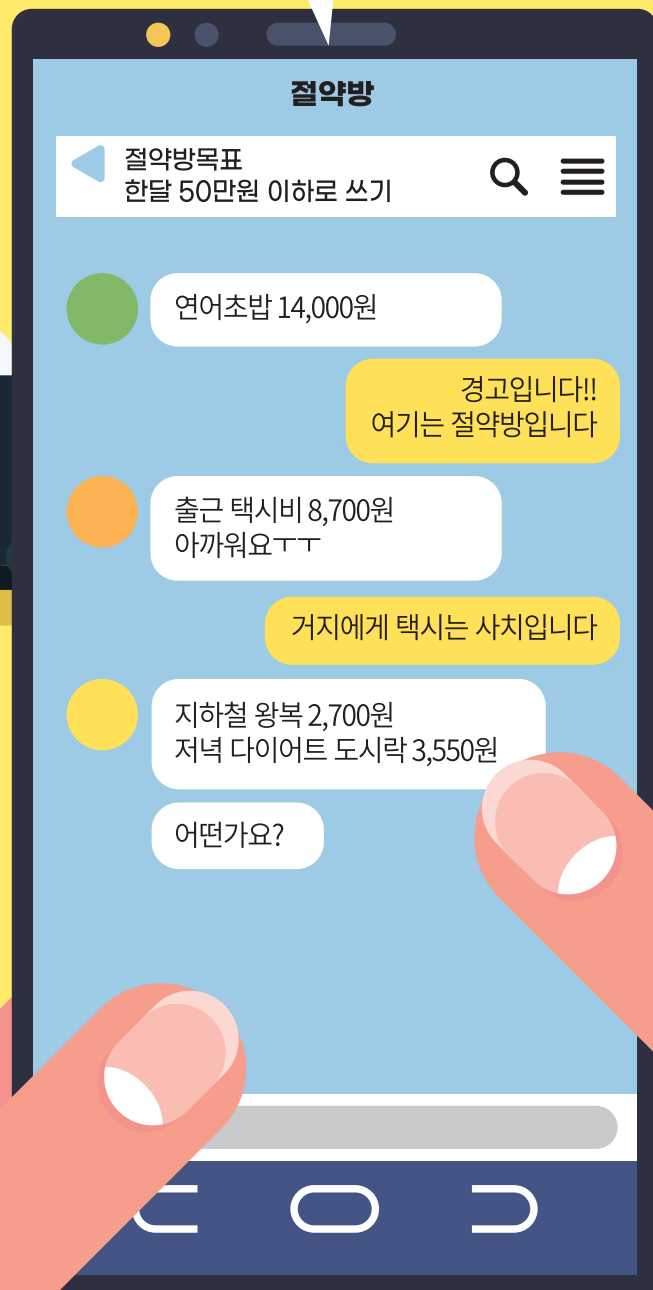
## 골퍼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어렵다’는 애로사항은 필자 개인의 경험에 불과하다. 불만처럼 얘기하지만 말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백안시하지도 않는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듯 한국골퍼 문화가 이렇게 정착된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한국의 방식으로 골퍼를 즐긴다는 것이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순기능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한국골퍼 문화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즐기고자 한다.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요금, 부킹, 라운딩, 멤버 등에 이르는 아마추어 한국골프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지고 조금 더 열려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600여개의 골프장에게 ‘물들어올 때 노저어야 된다는 식의 장삿속’보다는 골퍼의 대중화에 일조하고 문화를 선도해나간다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골프 8학군 대한민국의 골퍼들에게 과유불급의 지혜를 한번 되새기자고 하는 건 철없는 계몽주의자의 항변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 함께하는 절약은 즐겁다 '절약방' 열풍

'내돈내산'은 내 돈으로 내가 샀다는 뜻이다.  
아무 문제없이 오롯이 자신의 돈으로  
물건을 사도 혼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한다.  
'내돈내산'을 해도 혼나게 되는 '절약방'에 대해 알아보자.



## 많고 많은 방 중에 왜 '절약방'일까?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많이 개설된 인기있는 채팅방 주제가 있다. 바로 '절약방'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검색을 해보면 이미 수백 개가 넘는 절약방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인원수가 많은 채팅방은 이미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절약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다. '절약방'은 사람들이 소비 전에 허락을 구하고 지출을 공유하며 절약을 위해 서로 채찍질하는 일종의 '무지출 챌린지'를 위해 개설된 방이다. 고물가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짠테크'의 일환으로 '절약방'이 만들어져 젊은 세대들의 놀이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 '절약방'의 매력포인트?

'절약방'의 참가자들은 최대한 절약하며 닉네임에 한 달간 누적된 소비금액을 업데이트하고 소비를 할 때마다 소비를 고백한다. 단순한 규칙이지만 절약을 하려는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잔소리를 한다. 채팅방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이모티콘 지출 유도입니다'라고 하며 어설픈게 따라 그린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이거나 쓰세요.' 라는 질타가 날아오고 '퍼스널 컬러 진단 4만원' 이라는 말에는 '퍼스널컬러 진단이 왜 필요한가요. 색종이 얼굴 옆에 대보세요'라고 하는 재치있는 대안도 제시해준다.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따끔한 비난을 피하려 소비 내역을 합리적인 소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도 '절약방'의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저를 운반 해주신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로 3,800원을 드렸습니다' 얼핏 봐서는 어디에 소비를 했는지 모르는 말로 교묘하게 속이려 했지만 '택시 타셨군요' 라는 날카로운 물음에 당황해하는 모습도 절약방의 재미다.

## 알뜰한 소비와 경제 관념을 심어주기도

물론 소비에 대한 비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 절약에 대한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링크 공유, 할인 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 절약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겐 칭찬과 응원이 쏟아진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생신 선물', '반려동물 간식 값'같이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소비는 다들 지지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 익명으로 진솔하게 소통하는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는 해외여행, 호캉스, 명품소비와 같이 소비를 자랑하는 게시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개인 SNS를 통해 남들보다 우월하고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비해 경제력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절약방'에서는 아끼려는 모습에 대해 모두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절약을 한다는 동질감이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절약방의 인기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기 관리를 중시하고 비슷한 세대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층의 특성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유행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 Digital-Transformation 시대, 물건이 아니라 생태계를 팔아라

글\_ 이승윤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건국대학교 교수



## 주요경력

- 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분과 부교수
- 현) 디지털 마케팅 연구소 디렉터
- 현) Bing그레, 닐슨 (Nielsen), 농협중앙회, 명지병원, 전) 신한은행, LG 전자, LG U+, 대교, 디지털 마케팅 부분 자문교수 (디지털)
- 현) 더. 워터멜론, 전) 서울 문화 재단, 브랜드 마케팅 자문위원 (브랜드)
- 전) 현대자동차 Insight Trip 고객 경험 프로그램 설계, SK 텔레콤 T Place, 공간 경험 설계 자문위원, 하이원리조트, CRM 설계 (고객 경험 설계)

## 주요저서

- 디지털로 생각하라, 북스톤 출판, 2021
- 디지털 시대와 노는법, 북스톤 출판, 2019
- 공간은 경험이다, 북스톤 출판, 2019
- 구글처럼 생각하라 <디지털 시대, 소비자 코드를 읽는 기술> 넥서스 출판, 2016

## 물건이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플랫폼 기업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 이제는 물건을 넘어서 생태계 자체를 팔아야 하는 시대일지 모르겠다. 대표적으로 생태계를 기반으로 고객을 락인(Lock-In)시켜 기업 가치를 증가 시킨 기업이 아마존(Amazon)이다. 잘 알다시피,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조스(Jeff Bezos)에 의해 설립된 세계최대의 유통 중개 플랫폼이다. 초기 아마존은 물류 창고가 없는 온라인 서점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이후 거대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과 이베이와 같은 다른 온라인 경쟁자들의 도전에 물리치고, 폭발적인 아마존의 성장을 만들어준 것은 아마존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다.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라는 생태계에 들어 오게 되면 연회비만 내면 조건 없이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배송 혜택만 준 것이 아니라, 2011년에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무료 혜택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내놓기 시작한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런칭해, 이 생태계에서 멤버십을 유지한 고객들이 다양한 영화 TV 프로그램을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는 아마존 드라이브를 통해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제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에는 인터넷 게임 방송 트위치의 스트리밍 게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한다. 한 마디로 생태계에 소속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그들을 락인(Lock-In)시키고 있다. 비단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만 생태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형의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생태계를 형성해 고객들을 락인하려는 전략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가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라는 사물 인터넷(IoT)자체 브랜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휴대폰이 삼성전자들의 가전기에 연결되어 개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전체 삼성 가전 기기들이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팀 삼성(Team Samsung)'이란 개념을 소개한다. 외부에서 손안의 휴대폰 안에서의 클릭 한번만으로 냉장고에 있는 와인을 특별한 온도에 맞춰서 chilling 시키거나 방안 온도를 적절하게 선선하게 사전에 만들어둘 수 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고객이 '뺨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집안에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거나 반려 동물이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진정 시킬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동으로 음악이나 영상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단순히 고객이 집안에 머무를 때만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들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집 밖으로 외출한 고객이 매일 매일 들고 다니는 손 안의 삼성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고객의 일상 전체에 걸쳐 삼성이 중심이 되는 연결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게 삼성전자의 핵심 목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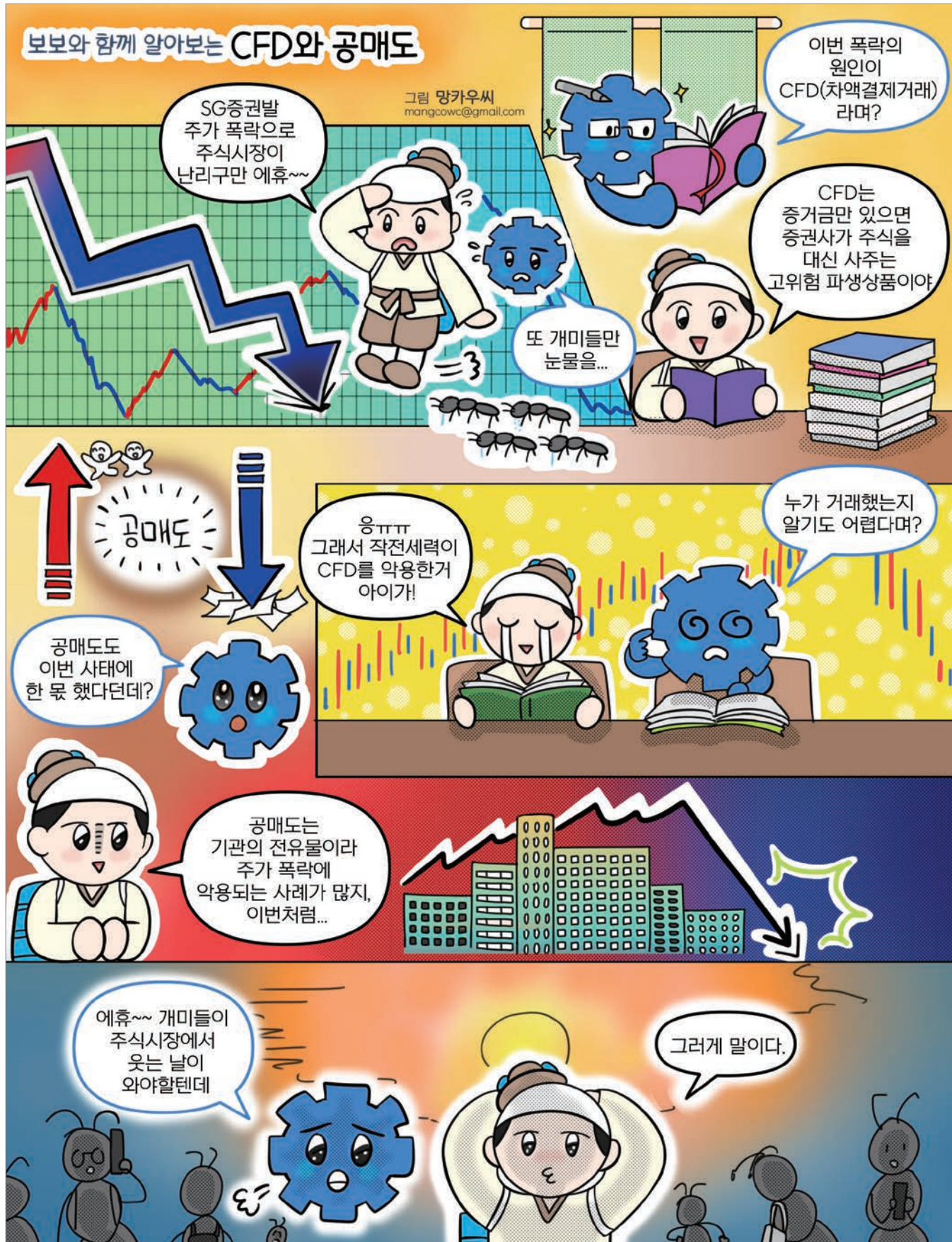
## 테슬라의 사례로 짚어보자

모빌리티(Mobility)부문에서 이런 고객 생태계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곳은 바로 테슬라다. '나는 매일 매일 새 차를 타는 경험을 한다' 미국에서 테슬라(Tesla)차량을 운행하는 유저들은 차량에 Wi-Fi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기존의 기능을 향상 시키는 OTA(Over The Air)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테슬라는 고객의 운행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을 팔기도 한다. 테슬라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운전 습관을 데이터화 하고 분석할 수 있기에 이런 운전 습관에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운전 습관 기반 보험(BBI, Behavior-Based Insurance)'을 2022년부터 팔기 시작한다. 결국 단순히 전기차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에게 차량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생태계화해서 팔겠다는 시도다. 한번 테슬라가 제공하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전체적인 고객 경험에 빠진 사람은 내연 기관으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자동차로 옮겨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 생태계를 만들어 락인하라

물건을 팔지 말고 생태계를 팔아라. 이 말은 결국 고객에게 매력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단순히 하나의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서, 물건과 관련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제품-서비스를 파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성공적으로 기업이 만든 생태계에 고객을 편입시키고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나간다면 앞서 이야기 한 아마존, 삼성전자, 테슬라의 사례처럼 이 고객이 다른 경쟁자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락인(Lock-In)하는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경제 정세기에 이제 기업들은 떠나지 않는 충성고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매력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 충성고객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





##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알아보는 CFD와 공매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최근 국내 자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도 물량으로 8개 주식들이 대규모 하락하면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사태는 CFD(차액결제거래)와 공매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만큼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차액결제거래(CFD) 무엇인가? ◀

차액결제거래는 영어로 CFD(Contract for difference)이며, 주식 가격 변화에 배팅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투자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 차액을 결제해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CFD는 40%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어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시장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증권사가 CFD로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FD는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수되어 거래 주체가 외국인으로 표시되며, 누가 주식 거래에 참여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주식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이번에 폭락한 주식들의 상승을 위해 세력들이 CFD를 활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 ▶ 공매도와 연관성 ◀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공매도 규제로 사태가 더 커졌다는 의견과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 규제로 사태가 더 커졌다는 분석은 해당 주식들 대부분이 공매도가 차단되어 있어 가격조정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공매도의 주 기능인 비이성적인 주가버블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잠재위험 요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였다는 의견은 폭락 주식 중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폭락 전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두고 가격 폭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매도를 악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CFD 및 공매도 제도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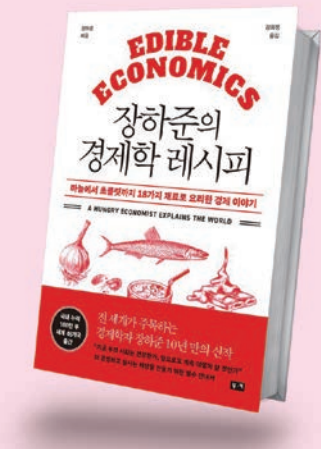
이번 사태로 정부는 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매도는 2020년 3월 금지된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를 했지만 나머지 2,000여 종목은 여전히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재개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매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규제 및 제약 사항이 많아 활용이 어려운 반면에 풍부한 정보와 매매기술, 자금력이 뛰어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참여 조건 부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불공정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추후 공매도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는만큼 다양한 의견을 잘 취합하여 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형평성이 있는 제도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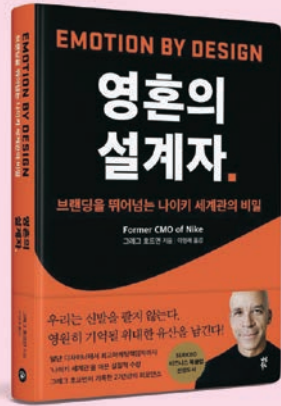


[브랜딩을 뛰어넘는  
나이키 세계관의 비밀](#)

## 영혼의 설계자

그레그 호프먼 | 다산북스 | 22,000원

‘Just do it’,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등 전 세계가 사랑한 캠페인의 주인공이자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등 골지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콘셉트를 만들어온 기업 나이키. 이들은 어떻게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소위 명품 브랜드를 제치고 글로벌 의류기업 브랜드 가치 1위로 자리매김했을까? 나이키가 단순히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넘어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약 30년간 나이키 마케팅을 이끌며 조직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데 헌신해온 그레그 호프먼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나이키가 만든 수많은 광고와 이미지 마케팅 경험을 정확히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감정 디자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 어디서도 공개된 적 없는, 실패담에서 길어올린 그들만의 브랜딩 철학을 들려준다. 나이키는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고객의 당연하고도 유일한 선택이 되었는가? 나이키는 어떻게 단순한 기억이 아닌 위대한 유산으로 소비자의 뇌리에 남게 되었을까?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떤 철학과 원칙을 지녀야 하는지 이 책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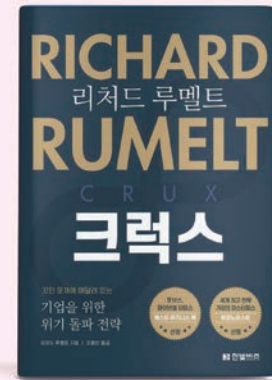
장하준 | 부키 | 18,000원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다양한 음식으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18가지 재료와 음식으로 가난과 부, 성장과 몰락, 자유와 보호, 공정과 불평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영화와 국영화, 규제 철폐와 제한, 금융 자유화와 금융 감독,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들을 흥미로우면서도 영양가 만점인 지식과 통찰로 풀어낸다. 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고정 관념, 편견, 오해를 깨뜨리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안한 경제 앞에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뚫고 성장해 나갈 힘과 희망을 전해 줄 것이다.

[가상 공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



[꼬인 문제에 매달려 있는  
기업을 위한 위기 돌파 전략](#)



[네 번의 금융위기에서  
발견한 부의기회](#)



## 다크 소셜

이안 맥레이 | 비즈니스맵 | 19,800원

소셜 미디어는 이제 어떻게 변해 가고 있을까?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 된 만큼 옳듯이 인간을 위해 유익하게만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저자는 현실 세계를 사는 인간의 성격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도 어두운 일면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러면서 성격 유형과 성격 장애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본다. 성격 장애가 영향 끼치는 것은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다. 온라인에 등장하는 각종 페제도, 결국 인간의 성격 장애에 의해 다수 발생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다크 소셜(Dark Social)』의 저자 이안 맥레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인간 성격의 어두운 일면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와 일터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일들의 원인을 밝힌다. .

## 리처드 루멜트 크럭스

리처드 루멜트 | 한빛비즈 | 28,000원

여기도 전략, 저기도 전략... 전략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전략’이라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세계적인 전략 거장 리처드 루멜트는 《리처드 루멜트 크럭스》에서 전략이란 매출 목표, 손익에 대한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전략 거장답게 구글, 넷플릭스, 삼성, 스페이스X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크럭스(꼬인 문제) 해결 전략을 사례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걸으로 볼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요소요소 들여다보면 매듭을 잘라야 할 지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단 하나의 고리만 잘라내도 다음의 풀림수가 눈에 보이게 된다고 한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을 찾는 데에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 베어마켓

러셀 내피어 | 한국경제신문 | 28,000원

앞을 가늠하기 힘든 금리와 환율,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지정학적 갈등 등 수많은 변화로 증시는 혼란스럽다. 예측하지 못한 거시 경제의 사건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언제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각국의 정부와 은행, 투자 전문가들은 이제 공허한 전망 대신 팩트에 주목한다. 바로 과거의 증시 흐름이다. 세계적인 금융시장 전략가인 러셀 내피어는 이 책 《베어마켓》에서 미국 증시 역사 속 네 번의 침체장을 <월스트리트저널 (WSJ)> 기사 7만 건과 당시 시장의 각종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다. 각 침체장 당시의 정치, 역사적 배경, 금융시장의 구조와 같은 방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당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반응, 균중의 심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점 또한 큰 장점이다. 더불어 침체장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식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루고 있다. 📈



# Busan Economic News

2023 06 June

## 넥센그룹·세운철강(주) 강병중·신정택 회장 제14회 동명대상 수상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과 세운철강(주) 신정택 회장은 5월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4회 동명대상 시상식' 산업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시 의회와 부산 주요 언론 등이 2008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도전·창의·봉사를 실천하며 1960~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한 동명목재 고(故) 강석진 회장의 유지를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매년

시상되고 있다. 이날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은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기업이익의 적극적 사회 환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으며, 세운철강(주) 신정택 회장은 국내 철강 가공센터 최초로 매출액 1조원을 달성, 수입재 국내 유입 방어, 다양한 단체 활동과 기부활동 등을 통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실천 등의 업적을 인정 받아 동명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대선조선(주) 연 수주 목표액 70% 한 번에 달성



대선조선(주)은 최근 중국과 유럽의 조선소를 제치고 이집트 교통부 산하 기업 '알카헤라 컴퍼니'와 14000DWT(재화중량톤수) 규모의 다목적선 2척의 선박 건조계약 체결과 190m급 카페리 여객선 2척 건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 규모는 모두 2억 5000만 달러로 이는 대선조선(주) 연간 수주 목표액의 70%에 달한다. 대선조선(주)은 수주한 다목적선

2척에 이집트 선주사의 운항 루트에 최적화된 선형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선조선(주) 관계자는 "정부와 기관이 이집트 대사관과 공동으로 조선해양 교역과 투자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덕분에 이집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 부산세계장애인대회 후원금 전달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은 5월 10일 부산국제장애인연합의회 사무실에서 8월에 개최 예정인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하였다. 이날 양재생 회장은 부산국제장애인연합의회 강충걸 회장과 (주)참콤 이경욱 회장과 함께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에게 전달했다.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은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준비가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는 저의 평소 신념으로 부산 기업인들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세계장애인



대회는 '대전환과 장애' 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주)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 (사)부산한일친선협회 제8대 회장 취임

(주)골든블루는 5월 9일 개최된 (사)부산한일친선협회 임시총회에서 최용석 부회장이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사)한일친선협회는 한일기본조약에 입각해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통한 친선을 도모하고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1972년 설립됐다.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석 부회장은 당 협회 제3대 회장을 역임한 故 최정환 회장(제13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장남으로 국내 주류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은 "그동안 습득한 국제 교류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 차원에서 친선 강화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 증진 및 번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에어부산(주) 인천-삿포로·보홀 노선 새로 띄운다

(주)에어부산은 6월 23일부터 인천-삿포로·보홀 노선을 새로 운항하며 수도권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5월 9일 밝혔다. 인천-일본 삿포로 노선과 인천-필리핀 보홀 노선은 각각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2시 5분, 오후 9시45분 출발해 삿포로 신치토세 국제공항에 오후 4시 45분,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에 오전 1시 25분 도착한다. 두 노선 모두 220석 규모인 A321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주력 시장인 일본은 물론 여행객 수요가 높은 다양한 여행지로 노선을 넓혀가며 수도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Busan Economic News

2023 06 June

### (주)화인베스틸

#### ‘초저온가스 관련 시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솔루션, NEXUS™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화인베스틸은 5월 17일 초저온가스 관련 시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솔루션, NEXUS™을 개발하는데 젊은 기업인들과 전략적 제휴 및 공동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사는 (주)화인베스틸, 벡서스가스(주), 오토시맨틱스(주), (주)인포인 4개 업체로 초저온가스 관련 시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솔루션인 NEXUS™을 개발할 예정이다. 화인그룹의 장인화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젊은 기업인들과 함께 내딛는 첫 걸음이자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지역 내 부족한 디지털기술 기반을 서울지역의 관련기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서로 간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부산에 R&D센터 설립

르노코리아자동차(주)는 5월 22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부울경지역대학 산학협력 단장협의회, (재)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부산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부산에코클러스터센터(가칭)’ 설립과 연계하여 부산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에 뜻을 모으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는 부산공장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에코클러스터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로 지역과의 상생 협력 강화, 지역인재 채용 등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한국에 중·대형급 차량의 핵심 수출기지를 구축하는데 대규모 투자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관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협의 중이라 전했다.



### BNK부산은행

#### 모바일 뱅킹 ‘MY자산’ 서비스 개편

BNK부산은행은 5월 16일 모바일뱅킹 앱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MY자산’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자산 관리의 편의성 및 활용성을 목표로 시행됐다. 개편을 통해 메인 화면의 메뉴 구조를 자산과 소비로 간소화하고 단순 자산과 부채의 비율 확인을 넘어 자산규모 변화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게 했다. 자산리포트에서는 자산 운용 목적에 따라 항목을 분류했고, 소비 리포트에는 고정비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가계부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새롭게 적용된 돈 아끼기, 돈 모으기 등의 챌린지도 참여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디지털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 (주)파나시아

#### 국내 최초 탄소포집장치 전문공장 짓는다

(주)파나시아는 5월 16일 부산 강서구 마음산업단지에서 제3공장 그린EPC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연면적 1만 3,886㎡ 부지에 지상 5층 사무동과 공장동 6개 규모 제조시설을 지어 이르면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그린EPC센터는 국내 최초로 미래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탄소포집저장장치(CCS)를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생산 인력 등 250여 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다. (주)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는 “친환경 분야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비 개발에 나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기술력 자립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 선보공업(주)

#### 최금식 회장 제5회 부산불교대상 대상 수상

선보공업(주)은 최금식 회장이 5월 20일 부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불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5회 부산불교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최금식 회장은 부산 불교총연합신도회 부회장과 길상사 신도회장 등을 맡아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부산연등축제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팔관회, 부산불교신년하례회를 비롯한 각종 불교 관련 행사 때 후원과 적극적 참여로 불교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을 준 것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최금식 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아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부산상공회의소

#### ‘쌘쌘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추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하여 주거·생계·의료비를 긴급지원 하는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쌘쌘이가 바른기업’ 정기후원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쌘쌘이가 바른기업’은 부산의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기업이 정기후원에 참여하여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월 20만원 이상 기부금을 환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현판용 후원명패 제공, 공익 마케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온정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쌘쌘이가 바른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기업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051-801-4013)로 문의하면 된다.



슬기로운 회원생활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2023년 6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 2일 완성! 자재 재고관리 기본

**일 시** 6.12.(월) ~ 13.(화) 09:30 - 17:30 (2일, 총 14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목진환 대표  
 (엠티컨설팅 대표, 상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박사)  
**수강료** 회원 154,000원, 비회원 308,000원

주 제	내 용
자재재고관리 기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환경의 변화와 재고관리의 중요성</li> <li>재고의 개념과 재고관리의 복잡성</li> <li>재고관리 업무의 이해</li> <li>구매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단계별 업무</li> <li>BOM과 MRP의 이해</li> <li>안전재고의 개념과 산출방법</li> </ul>
자재 입고 및 출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불관리의 개념과 중요성</li> <li>효율적인 입고 관리 방법</li> <li>수불관리 하기</li> </ul>
자재 보관 및 창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관원칙 정하기</li> <li>눈으로 보는 3정 5S관리</li> <li>재고조사의 종류와 특징</li> <li>불용재고의 처리방법</li> </ul>
재고삭감 추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고삭감의 중요성</li> <li>ABC 분석을 통한 재고삭감 활동</li> <li>VMI를 활용한 재고관리 방안</li> </ul>

## 고객 가치 기반 영업관리 전략

**일 시** 6. 19.(월)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윤재현 강사  
 (現 비앤디컨설팅 대표 / 영업·협상·경영컨설팅)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영업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 담당자 역량 자가진단</li> <li>영업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과 가능하게 하는 요인</li> <li>영업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별 목표 관리 시스템</li> </ul>
영업의 심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 행동 유형 분석</li> <li>설득의 심리학: 심리를 알면 고객이 보인다.</li> <li>고객과의 유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방법</li> <li>고객 심리 변화에 맞춘 설득과 거절 극복</li> <li>고객분석 및 접근 전략 수립</li> </ul>
영업 실전 스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치 기반 영업 활동을 위한 자사 분석</li> <li>경쟁사 분석을 통한 핵심과제 도출</li> <li>영업활동 프로세스와 고객 구매 프로세스 비교</li> <li>영업활동시스템을 활용한 영업 전술 체크리스트</li> <li>영업 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 예측 방법 및 효과적 달성전략</li> <li>워크시트 활용한 고객 공략 시나리오 만들기</li> </ul>

## 전사원이 알아야 할 감사보고서 활용한 재무제표 분석 실무

**일 시** 6. 26.(월) 09:30 - 17:30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 (상속·증여 세무전문가)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재무제표 분석에 필요한 기업회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분석에 필요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의미</li> <li>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숨어있는 기업의 분석회계와 재무구조의 우량성을 알 수 있는 해석 사례 해설</li> </ul>
재무상태표 주요항목의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상의 재무상태표 주요항목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주요 항목의 해설</li> <li>- 부채 주요 항목의 해설</li> <li>- 자본 주요 항목의 해설</li> <li>- 연결재무제표의 의미</li> </ul> </li> </ul>
손익계산서 주요항목의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주요항목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 주요 항목의 해설</li> <li>- 비용 주요 항목의 해설</li> <li>- 자본 주요 항목의 해설</li> </ul> </li> </ul>
재무제표 분석에 필요한 주요 재무비율과 원가회계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기관 여신분석 등에 유익한 주요 재무비율 해설</li> <li>자기주식 거래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li> <li>재무분석에 필요한 원가회계지식</li> </ul>
감사보고서 실사례를 통한 재무제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감사보고서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의 우량여부 판단과 해석방법</li> </ul>

## 202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실무

**일 시** 6. 29.(목)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석정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현인)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부가가치세 개요 및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가가치세 기본원리 이해, 최신흐름, 개정세법 소개</li> <li>면세와 면세의 포기</li> </ul>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징수와 그 특례, 발급의무와 그 면제</li> <li>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발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li> </ul>
매출액(=과세표준), 공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 및 공급 시기 의제와 선발급 특례</li> <li>과세표준의 계산 방식 및 대손세액공제</li> </ul>
영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세율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li> <li>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li> </ul>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하는 매입세액, 공제불가능 매입세액</li> <li>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재계산</li> </ul>
신고 및 납부(환급), 대리납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및 납부시 주의사항</li> <li>경감·공제세액의 계산, 예정고지·미환급세액, 가산세</li> <li>대리납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li> </ul>

## 2023년 개정세법에 의한 알기 쉬운 원천징수 실무

**일 시** 6. 30.(금)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석정 대표세무사(세무법인 현인)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원천징수의 개요, 최신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천징수의 기초흐름, 원천징수 시기, 납세지, 가산세, 원천징수요령 등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분석</li> </ul>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방법, 세율 등</li> </ul>
지급명세서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이해</li> <li>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및 사례</li> </ul>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소득 및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li> <li>임원퇴직금 및 직원퇴직금 제도 비교</li> </ul>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반 및 일용 근로자)</li> <li>근로소득 귀속시기 및 지급시기</li> <li>연말정산의 절차 이해</li> <li>소득공제 VS 세액공제</li> </ul>	비거주자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비거주자 원천징수 방법</li> <li>간이세액표 및 4대보험</li> </ul>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 위험은 줄이고 혜택이 더해진- 상공회의소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

PL(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가입대상

- ✓ 완성품·부품 제조·공급·판매업체
- ✓ 수출·수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업체
- ✓ 승강기·정수기, 각종 시설물 설치·유지보수업체 등

### 가입품목

-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자동차부품, 가전, 산업기계, 의료기기, 건축자재,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섬유, 잡화, 전기, 화학제품, 반도체 부품, 식품/음료 등

### 부산기업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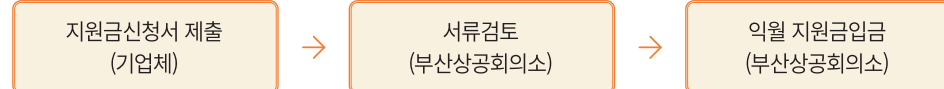
- **최대할인 40%**
  - 단체가입 20% 할인 [인증마크 5% 추가할인(국내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부산시 보조금 20% 추가환급(최대 100만원 한도,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 운영(국내)**
- **기업에게 유리한 가입·사고처리**
  -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 개별가입보다 훨씬 싸게, 사고처리는 훨씬 유리하게
- **대한상외의 현대해상(주간사), KB, MG, NH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보험**
- **대한상외 회원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
  - 아고다·하나투어·그린카·CGV·시원스쿨·건강검진·예다함·꽃배달·SK임직원물 등



### 가입절차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20% 보조금 추가환급절차



###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보험가입)

- 전화: 02-6050-3875~8
- 팩스: 070-7614-3422
- 메일: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http://PL.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보조금 환급)

- 전화: 051-990-7066
- 메일: kmc0313@korcham.net



#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을 위해  
취업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 모집기간: 사업공고일 ~ 2023. 12.(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부터 적립통장 개설까지 필수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연령 무관
- ✓ 지원요건: 2023. 3. 1. 이후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 조선·기자재업

- 1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당 기업
- 2 상기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 3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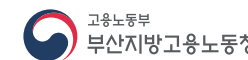
※ 2023. 1. 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지원금액: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자산형성



### 신청절차

- ✓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매칭 플랫폼 [www.bcci.or.kr/job/](http://www.bcci.or.kr/job/)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제출 [bcciplus@korcham.net](mailto:bcciplus@korcham.net)
-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사실 통보] ▶ [만기금 지급]
- ✓ 문 의 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4~6 F. 051)990-7149





#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청년 취업지원과 기업의 인력난을 지원코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오니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 지원내용

2023. 1. 1.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2개월 간 월 60만원씩 지원 (최대 720만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추가지급

### ▶ 기업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내 채용자부터 지원가능

2023. 1. 1.이후 채용자는 23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최대 30명)

### ▶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 소재지

부산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본사기준, 해당지역 소재 기업만 진행 가능)

## 참여대상

### ▶ 청년

- 2023. 1. 1. ~ 2023. 12. 31.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전환)한 “만 15~34세”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애로청년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 ▶ 기업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5인 미만 기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지원 대상 판단

### • 연 매출액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 인위적 감원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thjob](http://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 진행절차

STEP 1. 기업 온라인 신청

STEP 2. 협약 체결 (운영기관-참여기업)

STEP 3.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참여기업-채용청년)

STEP 4.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

STEP 5. 장려금 신청 (참여기업)

## 신청문의

### ▶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3, 8~9 F. 051)990-7149

## 기술인재 일자리매칭

부산지역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한

#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 플랫폼

### ▶ 사업기간 연중

### ▶ 지원내용

지역 구인기업 및 기술교육훈련 전문인력 POOL을 통한 상시 일자리 알선·채용지원

※ 구인기업이 일자리매칭 플랫폼을 통해 인재 채용 시, 정부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컨설팅 지원

### ▶ 신청방법

일자리매칭플랫폼(<http://job.bcci.or.kr>)

부산지역 구인기업      기술교육수료 구직자

일자리매칭 플랫폼 <http://job.bcci.or.kr>

구인구직 의뢰      구직 신청

채용정보 등록      이력서 등록

1. 일자리매칭플랫폼 등록

2. 구인·구직 DB 시스템 등록

1. 부산상의 JOB매칭데이 행사 개최

2. 기술교육수료생 지원자 상시 알선

3. 기업 채용공고 홍보 지원

##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 전문기관



### ▶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199, 7085





원스톱 준비되어 있습니다.

BUSAN is good for the EXPO.

### “Amazing BUSAN!”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BIE 실사단은 “부산은 모든것을 갖춘 도시”라며 최고의 감동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3.4.2~7	2023.6	2023.11	유치 성공 시 2030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BIE 실사단 방문 완료 (인프라 및 유치 열기 등 평가)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개회국 선정 투표 (171개 회원국 비밀투표)	61조원 경제 효과 50만명 일자리 창출 3,480만명 방문 예상



www.onestopbusan.kr



#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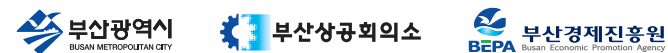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청 1층에 위치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사항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설립 목적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구현
- 신속한 기업 지원서비스로 부산기업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기업 역량 강화와 부산경제 활성화 도모

### ▶ 협력 기관



### ▶ 주요 추진 사업

- 1 기업지원 소통플랫폼 운영**
  - 기업애로 접수·상담 및 정보 제공
  -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 2 기업애로 현장 지원**
  - 기업애로 현장 방문반 활동
  - 기업애로 해소 협의체 개최
  - 기업애로 전문컨설팅 지원
- 3 기업애로·제도개선 건의·진정활동**
  - 대정부 및 유관기관 건의·진정 활동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Tel. 051-888-6491~3 | Fax. 051-888-6499 | E-mail. onestop@bepa.kr







# THE X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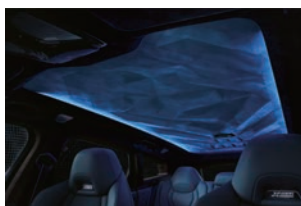
## 드라이빙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 THE FIRST-EVER BMW XM.

최초의 M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BMW NEW XM은 압도적인 외관과 미래지향적이고 럭셔리한 실내 디자인을 통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M만의 감성을 제공합니다.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



일루미네이티드 헤드라이너



넓은 공간의 M 라운지



새로운 빈티지 가죽 소재

BMW 공식 딜러 동성모터스.